

가는 곳마다 풍경화... 쉬엄쉬엄 걷고 싶은 섬

100년 해송숲에 논두렁·밭두렁·돌담길 정겨움 듬뿍

마을 구경 삼아 한나절 걷다보면 문명의 찌든때도 훌훌~



〈35〉 관매도 마실길(上)

송림길~ 셋배일출~ 관매마을



진도 앞바다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다. 섬 하나를 지나면 또 다른 섬이 기다린다. 먼 곳에 있는 섬은 해무에 싸여 희뿌연 색을 띠고, 그보다 가까이 있는 섬은 검은색, 배에 근접한 섬은 검푸르다. 푸른 바다 위 230여 개 섬 중에서 '다도해의 진주'로 불리는 관매도는 좀 더 특별하다.

최근 '1박2일'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섬은 그전부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절경으로 둘러싸인 신비의 섬으로 각광 받았다. 또 돌묘와 공돌, 할미증드랭이굴, 하늘담 등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관매 8경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관매도는 옛날에 새가 입에 먹이를 물고 잠깐 쉬어간다는 뜻으로 '볼매'라고 불리다가 1914년 한자식으로 지명을 고치면서 불을 관(觀)자로 표기해 관매도가 되었다고 한다. 또 1700년 쯤 한 선비가 제주도로 귀양 가던 중 약 2km에 달하는 해변에 매화가 무성하게 핀 것을 보고 관매도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생태관광지를 지향하고 있는 관매도는 말 그대로 '걷고 싶은 섬'이다. 한나절이면 섬 전체를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이지만 마을 곳곳에 마실길을 만들고 농·어촌 체험장, 공동 숙박시설을 조성해 탐방객들이 찾도록 했다.

관매도가 이름을 알린 것은 사실 해수욕장 덕이다. 20여년 전 휴양을 위해 우연히 이 곳을 찾은 사람들은 긴 해변과 해송숲에 감탄했고, 점차 입

소문이 나 많은 이들이 찾게 되었다.

관매 팔경의 제1경인 관매도 해변의 백사장은 경사가 완만하다. 해안선에서 100m 쯤 떨어진 바다의 수심도 사람 키를 넘지 않는다. 해수욕장 앞에는 다도해 섬들이 점점이 떠 있어 파도를 막아준다. 게다가 고운 모래가 깔린 백사장은 딱처럼 단단해 '떡모래밭'이라고도 불린다.

약 2km의 해수욕장을 따라 길게 조성된 숲(피톤치드 송림길)은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걷기에 그만이다.

수령 50~100년의 아름드리 곰솔(해송)들로 빼곡한 숲은 원래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사림으로 조성됐다. 400여 년 전 나주 사람 함재준이 관매도에 들어와 곰솔 한 그루를 심은 것이 시초라고 한다. 곰솔숲 내부에는 멸종위기의 나도풍란과 후박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 2010년 산림청이 선정한 '올해 가장 아름다운 숲'이기도 하다.

선녀가 내려와 방아를 찧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관매 8경 중 2경인 방아섬(남근바위)도 근처에 있어 찾아볼만 하다.

숲을 벗어나 습지관찰로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장산곶 마을이다. 10여가구의 작은 마을이지만 농촌 풍경을 간직한 곳이다. 습지 논두렁·밭두렁 길에는 열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논둑도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한 때 쌀농사도 지었다고 한다.

게 한다.

마실길 끝자락에서 만난 후박나무(천연기념물 212호)도 정겹다. 높이 18m에 둘레 3.7m에 이르는 위엄을 자랑하는 이 나무들은 참느릅나무, 곰솔과 더불어 당산림을 이루고 있는데 동네에선 매년 정초에 이곳에서 당산제를 모신다고 한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민 조송월씨는 "1박 2일 촬영지로 소문이 나 가을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며 "가끔씩 조종했던 섬이 그림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선착장 뒤편에서 시작해 셋배일출 쉼터까지 이어지는 3.5 km의 탐방로는 천연 그대로 관매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특히 관매도의 정상인 돈대산(해발 330.8m)에 보는 섬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태는 황홀하기까지 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섬 속 농촌 풍경을 간직한 논두렁·밭두렁길.



고향의 정취를 담은 추억의 돌담길.



▼걷고 싶은 매화의 섬 관매도가 최근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려는 탐방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 0 1 1 L E E S U N H E E C O N C E R T

여왕의 귀환! 이선희 콘서트

11.5(토) PM 7:00 11.6(일) PM 6: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는 올해로 가수 인생 27년을 맞은 '국민 디바' 이선희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지난 2월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선희는 이후 서울 세종문화회관공연 등 전국 투어 콘서트 마다 매진사례를 기록 하며 음악팬들을 열광 시켜왔습니다. '1983년 '강변가요제'를 통해 'J에게'로 데뷔 후 '나 항상 그대로' '한바탕 웃음으로' '아 옛날이여' '인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해온 이선희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관객들을 사로잡아온 아티스트입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주최 | 광주일보 KBC 주관 | KBC 미디어컴
문의 |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 (062-220-0541)
예매 | 쇼티켓/인터파크
VIP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